

## C. S. 루이스의 낯은 사랑?

오래된 주제에 관한, 독창적 에세이 《네 가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성 요한의 말과 함께 오래 전부터 제 생각 속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신이기를 그칠 때 비로소 악마이기를 그친다”라는 한 현대 작가(M. Denis de Rougemont)의 말이 그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사랑은 신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악마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고쳐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균형을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균형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는 저도 모르게 그 정반대 의미인, 사랑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드니 드 루즈몽의 말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모든 사랑은, 최고 정점에 이르면, 스스로 어떤 신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양 들려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대가를 계산하지 말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며, 다른 주장들은 모조리 깔아뭉개려 들며, 진심으로 ‘사랑을 위해’ 한 일이면 뭐든지 다 합법적이며, 심지어 훌륭한 일이라고 에둘러 말하기

도 합니다. 에로스 사랑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 이런 식으로 ‘신이 되기’를 꾀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애정도 마찬가지이며,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거듭해서 다뤄질 문제이기도, 여기서는 더 이상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연적 사랑들은 이러한 불경스런 주장을, 최악의 상태일 때가 아니라 최고의 상황, 자연스런 상태일 때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순수하고’ ‘고귀한’ 상태일 때 말입니다. 특히 에로스 사랑의 경우 더욱 명백합니다. 신실하고 진정한 자기희생적 열정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저 동물적이고 저급한 욕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욕망은 자기에게 중독된 이들을 수십 가지 방식으로 타락시킬 수는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사람이 그런 저급한 감정에 입각해 행동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감정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가려움을 참지 못해 긁는 사람이 그 가려움증을 존경하지는 않듯이 말입니다. 응석을 받아 주기만 하여 아이—변덕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녀에

게 살아 있는 인형이라고 할 수 있는—를 망치고 있는 어떤 어리석은 여자의 일시적인 자식사랑 탐닉(실은 자기사랑 탐닉)은 (정말로) ‘자기 아들을 위해 사는’ 어떤 여자의 깊고 편협한 헌신보다는 ‘신이 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또 맥주나 노래에 자극 받아 생기는, 그런 종류의 애국심은, 사람이 자기 나라에 큰 해를 (혹은 큰 유익을) 끼치게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마 맥주 한 병 더 시켜 마시거나, 크게 노래를 한번 따라 부르고 나면 그런 감정은 완전히 배출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는 우리가 응당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들이 신성을 주장할 때는 그 주장이 정말로 그럴 만하다고 여겨질 때에 그렇게 합니다. 또, 그 주장이 그럴듯해지는 것은 그 사랑들과 사랑 자체하신 분의 사랑 사이에 정말로 어떤 유사성이 있을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물의 사랑’ 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참으로 유사하며, 이 선물의 사랑 중에서도 무한정 끊임없이 내어 주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의 유형일 것입니다. 그런 사랑들에 대해 시인들이 하는 말들은 모두 다 진실입니다. 그 기쁨,

그 활력, 그 이내, 그 용서하려는 마음, 그 위하는 마음 등. 이 모두는 정말로—가히 우리의 숭배도 받을 만한 하나님 생명의 한 형상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유사성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물론, 원조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임무라고 할 수 있는, 더디고도 고된 접근과는 어떤 필연적 연관성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유사성이 참으로 탁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사함(Like)이 동일함(Same)인 양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무조건적인 헌신을 우리의 인간적 사랑들에게 바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들은 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며, 또한 그것 자신도 파멸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자리를 허용받은 자연적 사랑은 그 사랑 자체로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들어가는 말’ 에서 발췌 · 인용



© Signe & Arthur Strong

정본 C. S. 루이스 클래식 VIII

### 네 가지 사랑 The Four Loves

C. S. 루이스 지음\_이종태 옮김\_A5신변형\_양장\_7월 출간예정

“루이스는 논쟁적인 의제와 우리가 이미 오래 전에 정리되었다고 생각하는 주제, 그리고 우리 앞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주제를 가장 편안하고 탁월하게 다루고 있다.”

클라이드 킬비\_휘튼 칼리지 영문학 교수 · C. S. 루이스 연구가

“기독교 변증학 분야에서 개척되지 못한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는 데 시발점이 되어 준 작품.”

루이스 마르코스\_휴스턴 침례대학교 · C. S. 루이스 연구가

“그는 이 책을 결코 좀 더 나은 정도로 쓰지 않았다.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밝게 비추어 주며 도발적이고 독창적인 견해들로 번득이고 있다.”

Church Times

정본 C. S. 루이스 클래식



I 스코루테이트의 편지



II 순전한 기독교



III 고통의 문제



IV 예기치 못한 기쁨



V 천국과 지옥의 이론



VI 헤아려 본 슬픔



VII 시편사색

#### 지면안내 紙面案内

1 근간 ----- 네 가지 사랑 / C. S. 루이스

2 구간 ----- 레프트 비하인드 6

3 신간 ----- 1\_백 투 예루살렘  
2\_이슬람 신화 깨기, 무슬림 바로 보기  
3\_황진이  
4\_오직 나의 신으로  
5\_2005 서울극장 사랑의 초대(1,2,3)

근간 ----- 1\_네 가지 사랑  
2\_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성경에는 있다  
3\_매듭짓기  
4\_치료를 광선

4 기획광고 -----어린이 Best Books

#### 온고지신 溫故知新

### 이제 다시 김성일의 소설을 읽자 2

## 1990년

홍수以後 1\_의혹의 강 믿음의 글들 76\_A5신\_288면\_8500원

홍수以後 2\_반역의 탑 믿음의 글들 77\_A5신\_312면\_8500원

홍수以後 3\_이별의 곡 믿음의 글들 78\_A5신\_288면\_8500원

홍수以後 4\_약속의 문 믿음의 글들 79\_A5신\_288면\_8500원





계명외기 1

\*이 심계명은 부부가 따로 또 같이 묵상하기를 권합니다

부부의 심계명

제일계 남편되는이, 밖에서 불편하던 얼굴로 집안 식구를 대하지 마오.  
제이계 남편되는이, 무단히 나가 자거나 밤 늦게 돌아오지 마오.  
제삼계 남편되는이, 자녀 있는 데서 그 아내 허물을 책하지 마오.  
제사계 남편되는이, 친구의 접대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오.  
제오계 남편되는이, 의복으로 아내에게 잔말하지 마오.  
제육계 아내되는이, 남편의 부족한 일이 있거든 조용히 권할 것이요,  
결단코 군소리 마시오.  
제칠계 아내되는이, 물건이 껴있는 소리 내기를 절조있게 하시오.  
제팔계 아내되는이, 남편이 친구하고 담화할 때 뒤로 엿보지 마시오.  
제구계 아내되는이, 함부로 남편에게 의복 구하기를 입삼지 마시오.  
제십계 아내되는이, 항상 목소리를 크게 하여 역하게 마시오.



전택부 · 윤경남 지음, 《부부의 심계명》에서

소설읽기 1

그날 이후, 남겨진 사람들

레프트 비하인드 6

팀 라레이 · 제리 젠킨스 지음\_홍종락 옮김

비키 아버지는 직장에 오래 붙어 있지를 못했고, 어머니의 웨이트 리스 일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가 않았다. 비키 아버지는 정비사에 건축현장 막노동꾼, 즉석요리 요리사였고,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일한 적이 있었다. 결핍하면 경찰에 체포되거나 지각에 걸근 하는 바람에 번번이 직장을 잃었고, 그 다음 몇 달은 정부에서 나오는 생활보조금으로 근근이 살다가 또 다른 일자리를 잡곤 했다.

비키는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동네 댄스파티에 부모님이 제발 가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지만 두 분은 그 댄스파티가 한 주의 절정이라고 되는 듯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솔직히 비키도 한때는 댄스파티 때마다 오빠인 에디와 여동생 지니, 그리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길 좋아했었다. 부모님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싸움을 벌이는 동안 언제나 몰래 돌아다니면서 말썽을 부렸던 것이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동안 비키는 술 담배를 배웠다. 에디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혼자서 미시간으로 이사를 가 버렸다.

이동주택 마을 댄스파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들을 “종교에 빠진 사람들, 도덕군자들, 교회에 목매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비키 어머니는 종종 남편에게 말하곤 했다. “잊지 말아요, 여보. 나도 저렇게 자랐어요. 그것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아요. 근처 어디 교회에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그 터무니없는 미신에서 구해 준 게 나 아닌가.” 아버지는 그렇게 대답했었다.

아버지의 말은 교회를 향한 비키의 시각이 되었다. 비키는 그저 어딘가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들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고 비키를 창조했으며 그분이 지금도 비키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비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날 사랑하는 신이라면 어떻게 세상이며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단 말인가.

비키가 중학교 1학년이던 어느 금요일 밤, 비키 가족은 댄스파티를 알리는 요란한 음악소리를 듣고 밴드 공연을 듣기 위해 주차장으로 몰려갔다. 비키는 파티가 시작되면 바로 지니를 따돌리고 친구들과

함께 달아나 담배도 피우고 맥주나 좀 마실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키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음악이 그쳤다. 모두가 깜짝 놀라 작은 무대를 올라다봤다. “어, 죄송합니다.” 리드 싱어가 말했다. “여기 마을 주민 한 분이 게스트 한 분을 모셨다고 합니다. 몇 분 동안만 시간을 내달라고 하십니다.”

때때로 지역 정치인들이 댄스파티에 참가해 몇 마디를 던지거나, 경찰에서 말썽부리지 말라고 경고하거나, 아니면 땅주인이 나와서 “이런 파티를 열게 해 주는 걸 고마운 줄 알라. 계속 싸움판이 벌어지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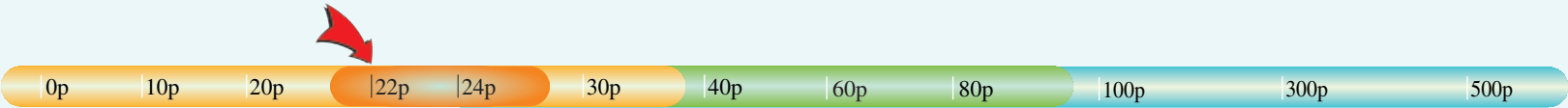
그러나 게스트와 함께 온 동네사람은 댄스파티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 남자였고, 비키 아버지가 비아냥대던 교회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리고 게스트는 목사였다. 그가 말을 꺼내자마자 사람들은 투덜거리며 “음악 다시 틀어”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잠깐만 집중해 주신다면, 절대로 여러분 시간을 5분 이상 빼앗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도 이 말을 꼭 듣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말에 모두 조용해졌다. 그는 매우 빠르고 간략하게 메시지를 전했다. 성경구절도 들어 있었고 때때로 큰 소리로 말하기도 했다. 비키는 친구와 함께 딱 한 번 교회에 가 본 적이 있었지만 이 목사가 하는 말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비키는 모두가, 심지어 바텐더와 음악가들조차 하던 일을 멈추고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다. 아무도 뛰어다니거나 말하거나 움직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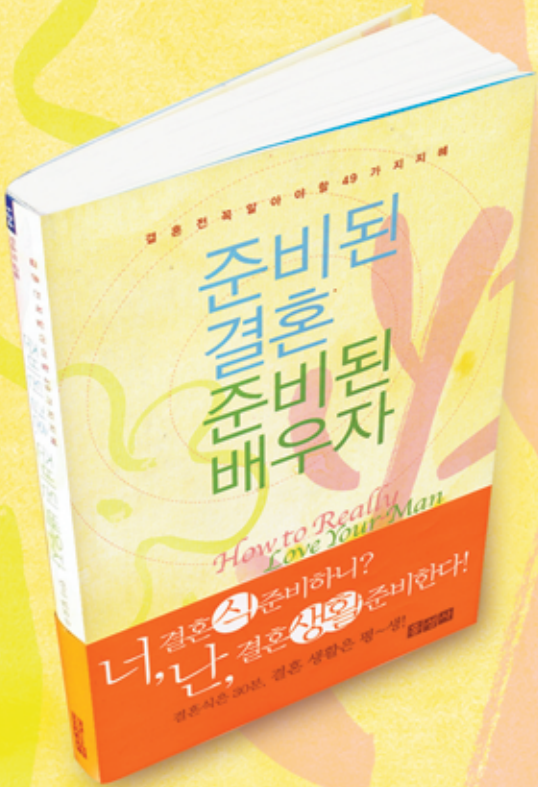
연사의 말이 그리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는 느낌이라고 할지 분명 뭔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말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는 듯했고, 확신과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었다. 그가 한 말 중에 비키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라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는 것뿐이었다.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이 죽을 때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원한다고 했다.

▶ 22-25페이지



하이마트 가기 전, <결혼 4부작> 챙기셨나요?

-탁월한 '결혼생활 도우미'를 소개합니다!



준비된 결혼, 준비된 배우자

린다 딜로우 지음\_양은순 옮김\_A5신변형\_반양장\_8,800원

정동섭 (열방대학 가정사역학교) 교수  
김병년 (IVF 신임간사훈련담당) 목사 추천!

“준비된 결혼”은 행복을 약속한다. 이 책은 어떤 혼수품보다 예비 부부에게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다.”-정동섭/열방대학 교수



남자도 잘 모르는 남자의 성  
아치볼드 D. 하트 지음\_유선명 옮김\_A5신변형\_304면\_9,000원

래리 크랩, 릭 워렌, 게리 콜린스 추천!  
미국 풀러신학교 교재!

“건강하고 충만한 섹스에 관심 있는 남녀 모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게리 콜린스/리버티대학 심리학 교수



여자도 잘 모르는 여자의 성  
아치볼드 D. 하트 지음\_김종철·박진숙 옮김\_A5신변형\_360면\_10,000원

이영애 (산성회) 실장  
배정원 (성문화센터) 소장 추천!

“여성이 원하는 것은 먼저 춤과 대화를 통한 성적 친밀감이라는 메시지가 이 책을 읽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밝은 빛으로 전달되기를 바라며, 기쁘게 추천한다.”-이영애/산성회 상담정보실장



부부도 잘 모르는 부부의 성  
조셉 딜로우 지음\_김선형·김응교 옮김\_A5신변형\_352면\_10,000원

성인경 (라브라선교회)  
주서택 (내적치유사역연구원) 목사 추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성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이해하고 누릴 수 있도록 옷 입혀 줄 것이다.”-주서택/내적치유사역 연구원장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중국 지하교회의 담대한 비전

# 백 투 예루살렘

Back to Jerusalem

“중국 지하교회의 놀라운 비전과 용기를 보여 주는 책”

1세기 전 중국은 의화단 사건의 상흔 속에서 자라났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백만을 약간 넘길 뿐이었다. 그로부터 50년 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선교지가 되었고, 그로부터 또 50년 동안 공산주의와 극심한 압박을 거치면서 중국 교회가 21세기에 선교사를 가장 활발하게 파송하는 나라가 될 것을 그 누가 꿈이라도 꾸었겠는가?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작은 한 권의 책은 오늘날 어떻게 이러한 비전이 생겨났는지를 보여 준다. -패트릭 존스톤(세계기도정보) 지은이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국 교회의 놀라운 비전과 용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커다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을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윈 형제의 간증 (하늘에 속한 사람)과 함께 읽는다면 그 감동과 도전은 배가 될 것이다. -한철호(선교한국 상임총무·선교사)

원 형제·폴 해터웨이 외 지음·류응렬 옮김·민음의 글들 222\_A5신변형\_224면\_7,800원



## 2005 서울극장 사랑의 초대

새롭게 선보이는 ‘손 안에 전도’ 시리즈!

\* ‘2005 서울극장 사랑의 초대’는 (주)서울극장이 대중문화의 장인 영화관(cinema)을 복음 전도(evangelism)와 결합하여 기획한 ‘극장집회’로, 모든 관객을 무료로 초대하여 국내 최대의 상영관에서 음악 공연에 이어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함으로써, 문화의 장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영적 위로와 평안뿐 아니라 복음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뜻으로 시작되었다. 이재철 지음\_소책자+Tape (각권 80~88면+60분)\_3,000원

- 1 질문 있습니까?  
가장 화려하던 젊은 날, 인생의 질문을 통해 방탕했던 과거를 버리고 거듭난 이재철 목사의 진솔한 고백이 펼쳐지며, 인생의 질문을 품지 않고서는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는다.
- 2 시간은 공간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의 역류관’을 통해, 주어진 생의 시간을 잘못 쓰면 결국 공간이 파괴된다는 가르침을 전하면서 시간과 공간과 생명이 결국 하나임을 일깨운다.
- 3 “웃기고 자빠졌네”  
유명 개그우먼이 자기 모비명에 남기겠다고 한 말(“웃기고 자빠졌네”)을 통해 흥미진진하면서도 예리하게 인생의 본질을 파고드는 메시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노스임을 깨닫게 될 때, 참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는다.



중동 전문가 김동문의  
이슬람 문화·선교 길잡이

## 이슬람 신화 깨기, 무슬림 바로 보기

〈한겨레21〉 중동 통신원 김동문의  
이슬람 문화·선교 현장 입문서!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목은 고정관념들이 널려 있다. 그리고 이 편견들 때문에 오히려 ‘이미 열린 선교’의 문이 닫혀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것은 내가 이슬람 세계를 직접 접하기 전까지,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중에도 여전히 맞부딪뜨리곤 하던 편견들이기에, 먼저 경험한 자로서 이 상황을 바로 알리고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되었다.”(여는 글에서)

“책을 읽는다고보다 저자와 앉아서 긴긴 저녁, 무슬림 이야기에 깊이 빠져드는 느낌이다. 이렇듯 그의 글이 살아 있고, 힘 있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무슬림에 대한 그의 사랑 때문일 것이다.” -전재욱(한국이슬람연구소 소장)

김동문 지음\_A5신변형\_240면\_8,500원

●주요내용

‘할람’과 ‘하람’의 차이, 할개 치는 동성애, 기독교인은 아하다? 자폭 테러의 영광?\_이삭의 후예인가, 이스마엘의 후예인가\_보완(?)되어야 할 선교 보안법\_가공의 이슬람, 가상의 무슬림\_선교사인가 실업자인가\_명만 밝는 ‘똥 뽐기는 가라’…….



## 황진이

옥중에서 카뮈의 〈오해〉를 통해 시작된  
노시인의 희곡 세계!

“기억을 더듬으면 내가 희곡 창작에 손을 대게 된 것은 저 자유당 정권 말기 반독재 투쟁에 나섰다가 옥고를 치르면서 옥중에서 주로 전후(戰後) 프랑스에 흥미하고 있는 무신적(無神的) 실존주의 작가들의 작품이나 이론을 집중적으로 읽다가 나는 홀연히알까, 감득한 것이 ‘인간 실존에 내재된 것은 불안이 아니라 수치심이다’라는 깨달음이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나의 이 거창한(?) 사상을 이론적으로 형성하려고 별렀다. 이렇듯 나는 시로서는 형상화할 수 없는 자신의 사물에 대한 본질적 인식이나 그 논리, 즉 사상을 구상적(具象的)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희곡이나 시나리오를 써 보기로 한 것이다.” - 책머리에 몇 마디에서

구상 지음\_A5신변형\_392면\_15,000원

국내 유일의 단권본 소선회자 강해시리즈

㉞ 스기라 강해

## 오직 나의 신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오늘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 번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달라고 부르짖는 이 시대의 스룹바벨들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붙들고 었드려 있는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문에서

김서택 지음\_A5신\_440면\_12,000원



### 책방리뷰

●이재철 목사님의  
‘서울극장 사랑의 초대’  
〈소책자+테이프〉진열 모습



◀▲은누리 두란노 서점

▶동서울 두란노 서점



●《요한과 더불어》  
완간기념 할인판매 행사 모습

◀솔로몬 서점(총신대학교 옆)

정본 C. S. 루이스 클래식 VIII

## 네 가지 사랑

The Four Loves

낯은 사랑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

“루이스는 논쟁적인 의제와 우리가 이미 오래 전에 정리되었다고 생각하는 주제, 그리고 우리 앞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주제를 가장 편안하고 탁월하게 다루고 있다.” 클라이드 킬비\_웨튼 칼리지 영문학 교수·C. S. 루이스 연구가

●책임편집 한수경(refuge@hsbooks.com)

C. S. 루이스 지음\_이종대 옮김\_A5신변형\_양장\_7월 출간예정

## 근간

###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성경에는 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었다니?  
나는 왜 몰랐을까!

열 명 중 아홉 명은 읽고도 그냥 지나치는 성경 속 이야기들을 찾아내 쉽고도 깊이 있게 풀이한, 흥미진진 성경탐구서 2탄! 1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성경에는 없다〉에 이어 성경을 읽고 새롭게 해석하는 재미를 더해 준다.

낯은 부대도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_귀신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있다\_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죄가 있다\_스데반의 설교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_가족 전도를 위한 바울의 비법이 있다\_장가 못 가본 바울의 착각이 있다\_예녹이 승천한 진짜 이유가 있다\_모세의 부부싸움이 있다\_다윗의 독학 시절이 있다……

●책임편집 이현주(lhj@hsbooks.com)

오경준 지음\_A5신변형\_5월 출간예정

장년 시리즈 1聲

## 매듭짓기

세파에 꺾이지 않는,  
강인한 크리스천을 위한 인생 경영서

〈청년아, 울더라도 부러야 한다〉를 시작으로 청년서신 시리즈를 써 온 이재철 목사의 중·장년 메시지. 저자는 자연을 통해, 인생을 통해 숙고한 성경의 메시지를 대나무의 매듭, 그리스도인(Xian)의 매듭(기호 X)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각인시켜 준다. 크리스천의 삶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들, 즉 직업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고통스런 처지에 처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어야 하는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을 ‘매듭짓기’라는 주제로로 전해 주고 있다.

●책임편집 한미영(myhan@hsbooks.com)

이재철 지음\_A5신변형\_5월 출간예정

국내 유일의 단권 소선회자 강해 ㉞

말라기 강해

## 치료하는 광선

참된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라!

바벨론이 망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 후 ‘이 작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회의한다. 병든 제물을 바치고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점점 참된 제사에서 멀어지는 유다 백성, 이러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제사를 회복시킴으로” 유다 백성을 치료하실 것이라 말씀하신다.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 치료의 광선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목회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바로 할 때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책임편집 김해수(khs@hsbooks.com)

김서택 지음\_A5신변형\_5월 출간예정



